

# 용공 누명 '광주 햇불회' 33년만에 명예회복

## 1981년 국보법 몰려 4명 옥고...2명은 고문 후유증 사망 광주지법 재심서 '무죄' 선고...“사법부 과오, 대신 사과”

“33년전 우리는 평범한 광주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용공조작 사건을 꾸렸고, 우리는 그 희생양이 됐습니다. 33년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합니다.”

광주판 부림사건으로 불린 '햇불회' 사건의 당사자인 서의환(68) 씨는 무죄 판결이 떨어지지 눈물이 복받쳤다. 33년 전 전남도 경 대경분실에 끌려가 15일간 고문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담뱃불로 오른쪽 눈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기석)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서씨 등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한 채 수사했다. 또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자술서, 수사기관의 조서·압수물 등 검·경의 강압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이들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 이를 통해 만

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기석 부장판사는 판결을 끝내고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 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사과했다.

“햇불회”는 1981년 10월께 서씨 등 16명이 꾸린 계모임 형태의 친목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듬해 3월23일 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전남도경 대경분실에 불법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서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당시 광주지법 판사였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검찰이 서씨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법복을 벗어던졌다.

이들은 당시 1심에서 1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4월1일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은 지난 2월9일 받아들였다.

변호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시 검·경의 위법적 수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난다며 무책임하게 행동해 안타깝다. 당사자들의 고통이 연장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역주행 사고 다발지역 16곳 시설개선

### 광주 버들주공사거리·전남 고흥 운대교차로 등

2013년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다친 광주시 광산구 산월IC 부근 등 도로의 구조와 시설 문제로 인해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16개 지점에 대한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도로교통공단은 29일 ‘역주행 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회’에서 최근 3년(2012~2014년)간 359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국 176개 지점 중 구조·시설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64개 지점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 지점의 사고에 따른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1.5%)의 4배가 넘는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대상 지점은 버들주공사거리·상무교차로 출구·우석교차로 진출입로·2순환도로 신창지구 입구(이상 서구), 도천교차로·신가IC지점·금호자동차운전학원·산월IC(이상 광산구) 등 모두 8곳이다. 이 지점에서는 2012~2014년 모두 9건의 역주행 교통 사고가 발생, 26명이 다쳤다.

- 광주·전남 ‘역주행 교통사고’ 방지 시설 추진 지점
- 광주(8곳)
  - 버들주공사거리, 상무교차로 출구, 우석교차로 진출입로, 2순환도로 신창지구 입구, 도천교차로, 신가IC지점, 금호자동차운전학원, 산월IC
- 전남(8곳)
  - 고흥 운대교차로, 곡성 무창교차로, 나주 등정삼거리 및 나주고 후문, 무안 현경교차로, 영암 학산교차로 및 석포교차로, 함평 석보커브 등 8곳이 포함됐다. 특히 나주 등정삼거리에서는 2명이 사망하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고흥 운대교차로에서는 7명이 중상을 입는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다.

전남은 고흥 운대교차로, 곡성 무창교차로, 나주 등정삼거리 및 나주고 후문, 무안 현경교차로, 영암 학산교차로 및 석포교차로, 함평 석보커브 등 8곳이 포함됐다. 특히 나주 등정삼거리에서는 2명이 사망하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고흥 운대교차로에서는 7명이 중상을 입는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다.

## 구례서母子 승합차 안 숨진채 발견

29일 오전 8시40분께 구례군 광의면의 한 마을 도로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A(여·42)씨와 A씨의 아들 B(10)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흥기와 제조제 병이 발견됐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남편과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우울증으

로 괴롭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가족은 “28일 밤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29일 오전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60만송이 복구청 국화광장 오세요” 29일 광주시 복구청을 찾은 어린이들이 광장을 수놓은 국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복구는 다음달 8일까지 광장 정원을 60만 송이의 국화로 단장해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 해질 17:41 | 달출 20:14 | 달짐 09:30

곧 시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

◇지역별 날씨(℃)  
광주 8/14, 목포 10/14, 여수 12/14, 나주 7/14, 완도 10/15, 구례 9/14, 해남 9/15, 장성 6/12, 보성 8/14, 순천 10/15, 영광 8/13, 진도 10/14, 전흥 7/12, 군산 7/12, 남원 6/12, 옥산도 11/13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남해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남해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동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동해 먼바다 북서~북 0.5~1.5, 제주도 앞바다 북서~북 1.0~2.0, 제주도 먼바다 북서~북 2.0~3.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좋아요, 산물 주의

◇물때  
목포: 밀물 03:43, 썰물 08:53, 16:22, 21:25  
여수: 밀물 10:54, 썰물 04:22, 23:02, 16:53

◇주간 날씨  
31(토) 6/14, 11/1(일) 6/14, 2(월) 7/17, 3(화) 7/18, 4(수) 7/19, 5(목) 10/20, 6(금) 11/20

## 하남산단 수은중독 산재신청 4명으로 늘어

하남산단 내 조영기구 생산업체의 공장설비 철거 근로자들의 수은 중독(광주일보 10월22일 6면)과 관련,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근로자가 4명으로 늘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보름여 간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모 전구 제조업체 생산설비 철거

산재신청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 등은 앞서 산재신청을 했던 김모(60)씨 등 2명과 함께 해당 업체에서 설비철단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등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는 소변 속 수은 농도가 정상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민기자 kki@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

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게 하던 등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광주경찰 ‘10월의 마지막 밤’ 음주 특별단속

광주경찰청은 31일 새벽시간대(0시~오전 6시) 광주 시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새벽시간대 음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실시한 일제 음주단속 결과 평일 대비 적발자가 3배 증가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1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에스골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물** 를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물(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통형 상품안내 (100만원 한정)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블로합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